

## 문화전당 일부 지상으로

### 랜드마크기능 보완 지상 15m 올려...외곽주차장은 없애

#### 오늘 기본설계 중간보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대부분의 건물을 지하에 두는 설계자의 당초 기본 구상에서 탈피, 일부 건물을 지상 15m까지 올려 짓는 등 랜드마크 기능을 다소 강화하는 것으로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기본설계는 도시마케팅 차원에서 전당 자체가 불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광주지역의 요구를 얼마나 충족시킬지 시민들의 반응에 관심이 모아지고있다.

문화관광부는 18일 오후 5·18 기념 문화센터 대동홀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본설계 중간보고회'를 갖고 현상설계 이후 각계 의견을 수렴해 수정·발전시킨 기본설계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설계자 유규승씨는 전당의 지하 최저층의 레벨을 당초 25m에서 7m 올린 지하 18m로 상향 조정했음을 밝히면서, '빛의 숲'을 주제로 하는 문화전당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세계속 광주만의 유일한 랜드마크라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 랜드마크 기능 강화를 바라는 광주시민들의 요구를 수렴해 지하에 있던 어린이문화센터를 지상 13m 높이로 설계하고 전시장인 멀티스페이스도 지상 15m 높이로 짓겠다는 구상을 발표할 계획이다.

#### 문화전당 설계 달라진 점

- 일부 건물 지상화  
어린이 지식문화센터: 지하-지상13m  
멀티스페이스(전시장): 지하-지상15m
- 지하 최저층 레벨 7m 상승  
(지하25m→지하18m)
- 예술의 거리 전당까지 연장
- 전당 주변 주차장 대신 전당내 주차면적 600면으로 확대

우씨는 이와 함께 현상 설계안의 개념을 최대한 살리면서 랜드마크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전당 인근인 현 광주동부경찰서 부지 일대에 지상 30m 높이의 특급호텔을 민간자본을 유치해 건립하는 방안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예술의 거리의 경우 친보행자 환경을 조성해 문화전당까지 연장하고, 옛 전남도청 본관·민원실·상무관 등은 개보수해 사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한다.

우씨는 또 문광부가 전당 주변 외곽 주차장을 땅값 문제 등으로 포기함에 따라 전당내 주차면적을 600여 대인 규모로 늘리는 것으로 설계를 바꿔 주차장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광부는 당초 문화전당 연면적 4만3천평에 따른 법정 주차대수가 570대인 만큼 전당 외부에 최소 1천면~최대 2천면 가량의 주차장을 확보, 시민들이 외곽 주차장에 차를 두고 걸어서 전당으로 접근토록 하고, 전당

내부에는 100면을 확보해 긴급 및 필수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 교통 전문가나 광주시 관계자들은 외부주차장 없이 문화전당에 일반 건물과 동일한 기준의 주차장을 만든다면 교통혼잡은 물론 시민공원을 목표로 한 전당의 기능이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남로와 옛 전남도청 등의 문화전당 부지는 현재도 상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차량을 외곽에서 차단하지 않고는 시민공원을 조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 “외곽주차장 배치해야” 광주지역 시민단체 성명

광주전남개혁신연대등 광주 지역 10개 시민사회단체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주차장을 분산 배치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들은 17일 성명을 통해 “친환경적인 전당건립과 이를 통한 도심활성화를 위해 전당 부지내 600여 대 주차장 확보 계획을 철회하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분산 배치해야 한다”며 “지역 국회의원과 문광부, 광주시가 제도적 보완과 예산확보를 위해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정기자 jnews@kwangju.co.kr



#### 추억의 7080... 광주 총장로축제 개막

'제 3회 광주 총장로 축제'가 17일 밤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앞에서 열린 전야제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이날 전야제에는 4천여명의 시민이 참가, 가수 이용복·유심초·신계행 등의 노래를 들으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위정림기자 jrwi@kwangju.co.kr

## “美 동향 보며 조치”

### 北 안보리 결의후 첫 반응... 추가 핵실험 시사

북한 외무성은 1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안을 미국의 각본에 따른 선전포고라고 비난하면서 미국의 동향을 주시하며 해당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3·4·5면〉

북한 외무성의 이번 발표는 지난 15일 새벽(한국시간) 유엔 안보리에서 대북제재결의안이 통과된 이후 사흘만에 나온 공식반응이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금후 미국의 동향을 주시할 것”이라며 “그에 따라 해당하는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이미 천명하대로 조선반도 비핵화를 실현하기 위해 자기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그 누구든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내 놓고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털뜰 뜰만이라도 침해하려한다면 가져없이 무자비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민주시민위원회위원장 위부성 대변인

유엔 안보리 제재 3일만인 17일 북한 외무성 성명이 나왔다. 외무성 성명을 방송하는 조선중앙TV 화면. /연합뉴스

경고했다.

대변인은 “미국은 우리에게 대해 오산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시 집단이 역대 행정부의 대 조선관계사에 기록된 수치스러운 패배의 교훈을 망각하고 거덜이 난 대조선 적대정책에 매달려 제제와 압력으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면 그처럼 가소롭고 허황한 망상을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 “北 2차 핵실험 징후”

### 美 언론 “1차 실험 장소 인근서 의심차량 포착”

북한의 2차 핵실험 강행에 대한 우려가 더욱 고조되고 있다.

미국 언론은 16일(현지시간)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일제히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준비중인 징후가 포착됐다고 보도했고,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외상도 17일 2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이를 확인했다.

우리 정부도 이 같은 징후를 포착하고 밀착 감시와 비상근무태세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북한도 17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자주권과 생존권을 털뜰 뜰만이라도 침해하려 든다면 가져없이 무자비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추가지침을 경고, 향후 움직임이 주목된다.

아소 다로 외상은 17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2번째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보의 세부내용은 밝히기를 거부했다.

이에 앞서 미국 언론은 북한이 1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를 거부한 가운데 2차 핵실험을 준비중인 징후가 포착됐다고 정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박람회 유치 가능성 매우 높다”

### 여수 방문 로세르탈레스 BIE사무총장 긍정 평가

빈센테 곤잘레스 로세르탈레스(V. G. Loscertales) 국제박람회기구(BIE)사무총장이 '2012세계박람회' 여수 유치 가능성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또 여수 세계박람회가 지역 발전의 촉매가 되어야 하며, 10~20년 후 해양과 관련된 삶의 비전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6면)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은 17일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오현섭 여수시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시청에서 열린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 추진상황 설명회'에서 “한국은 경제·사회적으로 (세계적 규모를 지닌) 글로벌 플레이어(Global Player)인 반면 유치 경쟁국인 폴란드와 모로코는 (지역적 규모를 지닌) 리저널 플레이어(Regional Player)에 불과하다”며 “한국이 진지하게 (seriously) 접근한다면 유치성공 가

능성은 매우 높다(very good)”고 평가했다.

그는 또 “2012세계박람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시민의 열정과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핵심 변수(key factor)”라며 “박람회 유치 과정은 SOC(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 등을 통한 지역 발전의 촉매가 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지역민의 삶의 질을 끌어올리고, 해양과 관련된 미래 삶의 비전을 전세계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로세르탈레스 사무총장은 이날 헬리콥터를 이용, 오통도를 비롯 여수 박람회 후보지인 여수신항 일대를 돌아봤으며, 여수~순천 간 국도 17호선 대체 우회도로 건설 현장을 찾아 박람회 유치를 위한 SOC확충 상황을 점검한 뒤 서울로 떠났다. /홍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ROLEX OYSTER PERPETUAL DATEJUST

볼렉스 지정 판매점 • 광주 신세계백화점 2F 062-360-1340

## 광주일보 문학상에 주원규씨

### 소설 '너를 심판한다'

'제2회 광주일보문학상' 수상자로 주원규(31·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사진)씨가 선정됐다. 수상 작가에게는 300만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관련기사 15면〉



제2회 광주일보문학상 심사위원단은 수상작인 주씨의 '너를 심판한다'에 대해 “중앙 문단에서도 뒤쳐지지 않을 정도의 수작”이라며 “소재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가볍지 않은 주제의식이 작품 전체를 관통하고 있으면서도 재미있고 쉽게 읽혀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수상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태어나 충주대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주씨는 지난 2003년 광주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칼'이 당선되면서 등단했다.

한편 광주일보문학상은 광주일보 신춘문예 출신 작가들의 왕성한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제정됐다. 상금은 내년 1월 광주일보 2007년 신춘문예 당선작 시상식에서 함께 있을 예정이다. /정성필기자 camus@

## “남북경협 지켜볼 것”

### 라이스美 국무, 韓 대북제재 이행 압박

론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17일(한국시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문제와 관련, “북한의 행동은 동북아시아 주요 국가들에게 우려가 공유하는 전략적 이해를 분명히 보여줬다”며 “각국은 우리의 공동 안보의 혜택 뿐 아니라 부담(burdens)도 공유해야 한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일본, 한국, 중국, 러시아 순방길에 앞서 이날 국무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대북 제재결의 1718호는 모든 국가들에 북한의 확산 관련 물질의 수출입을 막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국제 기준”이라며 “이를 위해 미국은 확산방지구상(PSI)을 통해 나라들과 협력을 계속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히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사업을 계속한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에 대한 질문에 “한국이 북한과의 활동 전반에 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불 것”이라며 “그 결정의 많은 부분이 북한이 하는 일과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17일 아시아 순방에 앞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한국은 (북한이 핵실험 하면) 북한과 활동 전반을 평가할 것이 라는 점을 매우 분명히 밝혀온 만큼, 우리는 그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불 것”이라고 덧붙였다.

라이스 장관은 17일 출국, 먼저 일본에 들른 뒤 한국, 중국을 차례로 방문하며, 마지막 행선지로 러시아가 추가됐다. /연합뉴스

후원기관: 동양 56년 역사인 전통  
광주 신세계 백화점 광주점  
남부대학교  
http://www.nmb.ac.kr  
신입생 062-970-0114 • 1002970-5000-4

세계로 뻗어가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sc.ac.kr  
신입생 062-360-2001 • 1002970-360-5000

대한민국 국가정보  
TEL. 062-372-4800 FAX. 062-372-4802

국내 최고 권위의  
물가전문지